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3월 22일(주일) 제1287호

고난을 변화의 기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큰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교만했고 탐욕에 치우쳤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유화하고 겸손으로 종 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가치를 추구해 섬김의 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이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웃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

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영적인 수술을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재앙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려는 연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생명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질병과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 임재 안에서 살 때만 우리는 호흡할 수 있으며 진정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속히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소서. 치료 약이 속히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많은 환우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 간호진, 구호팀들에 힘을 주시고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능히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확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저질환자들의 생명도 지켜주소서.

한국 교회 공예배와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한국 교회를 무

너뜨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사이비들의 거짓 정체가 낱알이 드러나게 하셔서 한국 사회가 정결해지게 하소서.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기에 더욱 어려움 속에 있는 장애인들과 독거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이재훈 담임목사

* 이 기도문은 2020년 3월 11일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안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월 25일(화)부터 3월 29일(주일)까지
국내 전 캠퍼스의 예배 및 모임을 중단하고 각자의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 위 기간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https://www.cgntv.net>
2. 개인영성을 위해 생명의 삶(Q.T)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 매일 참여합니다.
3. 3월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공동체별로 공지됩니다.
4.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차세대 전용채널: <https://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5.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5:00, 주일 오전 11:30, 주일 오후 2:00, 주일 오후 4:00, 주일 오후 5:30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대학청년 전용채널
<https://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6.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영어예배 오전 11:00, 오후 4:00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스페인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오후 2:00

CGNTV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사랑으로 함께'

CGNTV가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 캠페인 '사랑으로 함께'를 진행합니다. 후원금은 취약계층, 미자립교회에게 전달됩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18-19105 (예금주: 재단법인온누리선교재단)
문의: 02-792-0691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25~29

“땅이 흔들리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흔들리는 위기를 허용하시고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섭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 흔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28-29절).

‘태워 없애는 불’이라는 부분을 개역개정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워 없애시는 불인 것은 태워도 타지 않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 불의 본질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불살라 버리는 것이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수하신 분입니다.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태우십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예배드릴 때까지 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지 않은 것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라는 것은 시내 산의 역사를 추억하는 배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조차도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만들어서 인간을 조종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태워 없애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불타 없어질 것들을 태우십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순수한 것들만 남기십니다.

시온 산에 임한 순수한 불, 열정의 불, 능력의 불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 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 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에 갇힌 피해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고전 3:12-15).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성도의 삶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각 사람들이 어떠한 정성과 힘과 재료로 삶을 세웠는지를 불 태우심으로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태워 없애시는 불로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상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은 흔들리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불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불로 태우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더럽고, 불완전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불태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거 시내 산이 아니라 또 다른 산에 오르는 백성들입니다. 불은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큰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은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지만 따뜻함과 친근함과 영원한 에너지 변화를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 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 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22절a, 24절).

우리는 시온 산에 다다랐습니다. 시온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 산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시온 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시내 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불은 모든 이들을 두렵게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온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은 사람들을 담대하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시온 산에 오른 이들은 하늘까지 흔들리는 흔들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온 산,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온 산에 오른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불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입니다. 시온 산에 오른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불은 사랑의 불꽃이요, 능력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행 2:3-4).

동일한 하나님의 불이지만 그들의 죄를 태우고 몸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지만 능력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불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불이 나무에 붙었지만 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던 것처럼 시온 산에 임한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기에 순수한 불, 열정의 불, 능력의 불로 임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시내 산에서는 두려움으로만 임했지만 시온 산에서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능력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를 때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벧전 4: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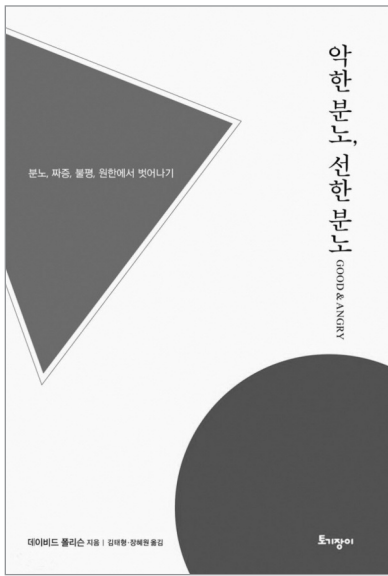
악한 자는 불에 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악한 자가 불을 피하고 도망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 값을 남김없이 값을 때까지 하나님의 불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온 산에 오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기뻐합니다. 자신이 더욱 정결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게 됩니다.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내 산에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 산은 율법의 산이요, 두려움의 산일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시온 산은 은혜의 산이요, 복음의 산이요, 기쁨의 산이요, 능력의 산입니다. 이 산에 임한 하나님의 불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능력을 얻을 때, 땅이 흔들리고 장차 하늘이 흔들릴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서 있는 곳이 시온 산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더욱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불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책 읽어주는 목사

분노의 정체



악한 분노, 선한 분노
데이비드 폴리슨 저 | 토기장이 | 19,000원

2008년 12월, 전임사역으로 첫 발걸음을 떼는 아들을 보며 걱정이 많으셨던 아버지께서는 20년 동안 굴곡진 목회현장에서 뽑아내신 진액 같은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언은 이것이었다.

“길타야, 어떤 경우여라도 성도에게 분노해서는 안 돼. 분노하는 순간 너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야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다. 데이비드 폴리슨의 신작 <악한 분노, 선한 분노>를 보는 순간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조언이 생각났다. 왜 분노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할까? 대체 분노의 정체가 무엇일까? 저자는 분노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대개 분노를 인격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인격이 성숙해지면 자연히 분노의 문제는 해결되겠지. 단지 지금 내가 젊기 때문에 분노는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노의 문제는 분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분노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용히 삭히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다. 조용히 삭히는 사람은 ‘나는 분노를 이겨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유형의 분노 표출이라는 방식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불같

이 화를 내는 사람이나 조용히 삭히는 사람이나 모두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분노는 내가 쌓은 여러 가지 삶의 열매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분노의 정체는 현재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사실 우리는 그다지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일에는 분노하지 않는다. 정치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영역에 분노라는 에너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보이신 분노는 그분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해준다. 예수님의 분노는 의분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만, 삶 속에 보이는 우리의 분노는 대개 의분이라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대변하고 있는 감정의 산물이다. 대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목회현장에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목회라는 것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감정을 앞세워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데이비드 폴리슨은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는 ‘회개’다.

분노라는 것 자체가 내 뜻대로 되어야 사라지는 것이기에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주인 삼았던 그 인공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작업이 회개이기에 분노 해결의 출발점은 회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이다. 악한 분노와 선한 분노가 뒤섞여 있는 인간의 분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자비에 기초한 건설적인 불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나아가 교만이라는 매우 심각한 죄악이 결부되어있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나도 분노의 문제로 씨름을 했고, 또 씨름을 하고 있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분노의 문제로 시작된 여러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분노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서를 추천한다.



이길탁 목사
(요셉공동체)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라!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도 좋은 가정예배가 될 수 있다. 노아의 방주, 아기 예수의 탄생, 모세의 험난한 여정 등 다양한 성경 일화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몇 개 있다. 먼저 고전명작 ‘이집트 왕자(1998)’다. 이집트 왕자에서는 출애굽기를 주제로 모세의 일생과 이집트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 등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에서 제작한 만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

도의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이집트 왕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차기작 이집트 왕자2에서는 요셉이야기를 다룬다.

두 번째 추천 애니메이션은 ‘더 크리스마스’다. 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주제가. 당나귀와 양, 비둘기, 낙타 등 동물 친구들이 등장한다. 더 크리스마스에서는 당나귀 ‘보’와 동물 친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키는 모험이 펼쳐진다. 보와 친구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는데 성공한다. 또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낙타, 당나귀, 비둘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기대하게 만든다.

세 번째 추천 애니메이션은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이다.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들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아의 방주에 오르지 못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모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홍수를 보기위해 방주 밖으로 나갔다 방주에 다시 오를 기

회를 놓친 파니와 리아에게 눈물겨운 여정이 펼쳐진다. 이들은 과연 다시 방주에 오를 수 있을까?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에서는 부모의 역할, 방주의 중요성 등 다양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내 자녀도 내가 한 눈 판 사이 방주에 오르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품이다. 세 작품 모두 네이버 영화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할 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하나님의 선한 계획

본문: 창세기 45장 4~7절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메시지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였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고 요셉의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요

셉과 형들이 극적으로 만납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을 바라보며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안심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증거 합니다. 실패인 줄 알

았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정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겸손히 행합니다.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포옹하며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들은 분명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

의 치밀하신 계획을 겸손히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역사와 삶의 모든 순간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겸손히 바라보는 모든 가정되시길 축원합니다.

/ 문영재 목사

*오늘(3월 22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